

# 미국사용설명서

## <목차 안내>

들어가며.

제1장: 신분문제에 대해.

제2장: 영어능력.

제3장: 미국역사.

제4장: 미국에 온 동기.

제5장: 중하층.

제6장: 법률과 소송.

제7장: 정치체제.

제8장: 미국정치.

제9장: 범죄.

제10장: 기타사항.

나오며.

## <들어가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열흘 전쯤에 <영어사용설명서>라는 짧은 분량의 전자책(E-book)을 평생 처음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사용설명서>라는 짧은 전자책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자책 역시 너무 잘 쓰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되도록 빨리 일단 완성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새로운 카페에 왔는데, 앉은 자리에서 가능하면 단숨에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전자책을 쓰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카페에 왔는데, 와이파이 연결상태가 좋지 않아서 원래 하려던 업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백색 소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환경은 업무에 방해가 되겠지만, 약간의 소음은 오히려 정신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조용한 업무환경을 가진 사무실 같은 경우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백색 소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공간이 분위기도 좋고 쾌적한 환경이라, 자리에 앉은 김에 뭐라도 하려다가 갑자기 전자책 2탄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번 전자책 역시 지루하고 산만한 문체 보다는, 가능한 쉽고 명확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학술서적이거나 논문처럼 딱딱한 느낌을 주기 보다는 최대한 실용서적 컨셉에 부합하는 문체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쓴다는 것이 단순히 얕박한 책을 쓴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오늘도 이처럼 인사를 드리게 되어 여러모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장. 신분문제에 대해.

첫번째 챕터로써, 신분문제에 관해 말해봅니다.

미국을 출입할 때 필요한 법적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 세부내용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비자니, 영주권이니, 시민권이니, 그런 이름이나, 기초적인 개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쩌다가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기본사실도 모르시는 국민들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을 출입할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상식선에서 간단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혹 TV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어휘가, 그런 낱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초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런 뉴스나 시사방송, 예능방송을 보게 되는 경우 이해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비자.

비자는 미국에 입국 허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거기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자에 관해서 상식차원에서 알고 있을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자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미국입국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자를 가지고 미국공항에서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받는 심사가 <본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받는 비자인터뷰는 일종의 <예비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관련 공무원은 미국 연방정부 중에서 <국무부> 소속입니다.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일하는 연방공무원들은 미국 연방정부 중에서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시에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친절한 국무부 소속 공무원과 (특정한 사안에 따라 필요시) 험악한 국토안보부 소속 공무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 미국 체류에 대한 허용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년짜리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뜻은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뿐, 10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에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미국 공항에서 담당 공무원이 허가해주는 체류기간입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어줄텐데, 그 기간까지가 허용되는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거나, 체류신분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비자는 예외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했다면, 합법적인 체류기간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무비자가 있지만, 필요한 경우의 케이스에는 방문비자나 관광비자를 정식으로 국내에서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기간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나) 영주권.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히, 무제한의 기간으로, 즉 평생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미국에서 평생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일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이라는 것은 시민권에 필적하는 확고한 법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일종의 특별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자에 대부분 근접하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법은 지켜야 하고 세금은 내야 합니다.

몇가지 주의사항 또는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사정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의심의 소지 또는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기간의 외국방문이나 외국여행은 일반적으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미국내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재차 거론하지만, 미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점은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은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조세는 국가운영과 유무형의 사회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담과 평가입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받아보니, 제가 받아본 평생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뻑센 인터뷰였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출한 서류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무형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누설하면, 국가안보를 비롯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이민국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럴말도 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몇 십년이 아니라 <몇 백년의 노하우>가 쌓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다) 시민권.

시민권은 글자 그대로 미국시민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게 되면, 미국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의무도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납세의무이고, 젊은이들은 병역관련 사항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5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외국체류기간, 납세의무준수 등이 대표적 기준 사항들입니다.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로는 개인들마다 다양하거나 다양할 수 있지만, 시민권을 받는 경로는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점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취득 경로의 차이점입니다.

시민권을 받게 되면 외국에 무제한 체류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를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미국의 주인>입니다.

물론 <n분의 1>의 주인이겠지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평가하자면,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는 과정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과정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이민의 과정상, 그리고 이민법상으로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영주권보다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민의 실제와 이민법상으로는 보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과정상의 문턱은 영주권이 시민권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경우에는 그 특별한 혜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점들을 충족해야 하고 결격사유들을 피해야 하지만, 시민권 취득의 경우에는 그 기준점들이 더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몇 가지 기준점들은 미국에 거주기간 충족, 범죄기록, 납세, 시민권 시험 등입니다.

사안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기준들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미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들입니다.

## 제2장. 영어능력에 대해.

미국에서 살려면 당연히 영어능력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이겠죠.

영어공부에 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전자책도 계속 쓰고 유튜브 채널, 웹사이트 운영 등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은 나중에 모으고 엮어서 종이책으로도 출판하면 좋겠지요.

## 제3장. 미국역사에 대해.

미국역사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미국에서 업무, 비즈니스, 유학, 취업, 장기체류, 또는 이민 등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국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역사에 대해서 박사급의 지식을 누구나가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 부합하는 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좋습니다.

현재의 미국의 여러 모습과 제도, 문화,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역사와 관련 분야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4장. 미국에 온 동기에 대해.

이번 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미국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이 장에서 말하는 <미국에 온 동기>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는 동기나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현대시점에서 미국에 오게 되는 동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시점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냐?

미국에 맨 처음에 이민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점을 미국 영주권을 받고 몇 년을 살게 된 이후에 피부로 실감하게 됨을 떠올립니다.

즉, 이 점은 역사적 사실이나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적 맥락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점이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추가설명을 드리기를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 말씀 올립니다.

미국에 누가 처음에 온 부류이냐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논란이나 검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딱딱한 얘기가 아닙니다.

최초 원주민들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나 바이킹족들에 대한 얘기는 다른 기회에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콜럼버스와 그러한 비슷한 시점에 미국에 온 비슷한 부류에 대해서만 말씀 드립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미국 역사를 통틀어, 더불어 현대 미국문명을 이해하고, 미국문화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정보와 분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콜럼버스나 그러한 비슷한 부류가 미국에 오고자 한 계기나 원인은 다르게 아닙니다.

약간씩 품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향신료> 또는 <금> 또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는 품목>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만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서 <금과 향신료, 기타 품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음미해 보세요.

(물론 나중에는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비자발적으로'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문명과 미국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탐욕>이라는 낱말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Greed> 또는 <American Greed>라고 표현하는데, 이 <탐욕>에 개념에 대한 이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욕심> 정도가 아닙니다.

스케일이 다른 <탐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전히 미국의 많은 시스템과 문화의 실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대륙을 지배했던 자들,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자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력, 사법권력, 행정권력, 경제권력, 금융권력, 자본권력 등에서 그런 탐욕을 가졌던 자들이 지배했고, 그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역사적 미국이었고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이러한 <탐욕>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현대 미국의 정치, 행정, 법률, 사법, 경제, 금융,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쟁, 국제관계, 국제경제, 국제금융, 국제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국제적 범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온 동기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제5장. 중하층.

이번 장의 얘기는 그냥 단순히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수반하지는 않고, 막연히 주관적으로만 언급합니다.

단순히 설명하거나 그렇게 언급하기에 오해의 소지마저도 있지만, 다른 기회에 더 풀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역사적으로 이민온 부류에서 대략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미국의 모든 지역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지역 출신들의 많은 인간들을 만나보고 살펴보고 겪어본 바에 따르면, 많은 점들을 주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장의 핵심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후에 짧게 덧붙이고 이번 장을 끝내겠습니다.

핵심은 특정 사회나 국가의 <중하층> 부류가 미국에 역사적으로 많이 건너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감자 대기근> 사태가 유명합니다.

그때 아일랜드에서 굶주림과 아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때 건너온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회의 귀족층이었을까요?

자기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먹을 것도 없이 헤메던 부류였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가치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기회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 남미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오고자 하는 부류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회의 정점에 있는 상류층일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케이스에서, 귀족들이나 상류층들도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점의 중요 부분은 <양적인 측면>입니다.

즉, 미국 이민사에서, 이민자들을 양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거나 분석해 볼 때, 그 국가나 사회의 최상층이 왔는가, 아니면 중류나 하류가 왔는가를, <양적으로 살펴볼 때>, 중하류가 많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한 제 주관적 직관입니다.

현대적인 시점에서는, 또는 현 시점에서는, 물론 이민법상 교육을 받은 기술자 계층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기에, 고학력자나 특화된 기술자들도 미국에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한 사회의 하층을 이루는 계층은 당연히 아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정신적 측면>, <문화적 측면>, 또는 <사상적

측면>에서 한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최상류층이라고 불릴 수는 있을까요?

즉, 밥술이나 뜯 수는 있어도, 한 사회의 고도의 정신적 가치나 사상적 가치를 대표하는 부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STEM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 계통은 다른 분야보다 이민법적으로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가진 계층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대단히 높은 사상적 가치를 가진 부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사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별개입니다.

제가 이 점을 자꾸 느끼게 되는 계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누적적으로요.

제가 미국의 서부 출신, 동부 출신, 특히 남부 출신의 사람들과 지역들을 겪어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에 이민을 온 부류가 어떤 이들이었는가?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부 지역에, 특히 딥사우스(Deep South)라고 불리는 지역에 어떤 이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그 사회의 정치, 사법, 경제 권력을 지배하고 행사했는가?

중서부에는 어떤 부류들이 많이 왔는가?

극서부에는 어떤 부류들이 많이 왔는가?

이런 점들은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에 이민법이 역사적인 개정이라고 불릴만큼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이후로 이민숫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이민을 가게 된 부류가 한국사회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고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양적 측면>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덧붙입니다.

<극빈자> 또는 <극빈계층>은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이민법적으로 그런 이들은 배제 조항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극빈계층은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올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중류 계층과 하류 계층이 미국에 양적으로 많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 점이 미국문화와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 제6장. 법률과 소송.

이번 장은 법률과 소송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을, 저는 기회가 되어 주관적으로도 비교적 깊숙이 겪어볼 기회가 있었다고 감히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정말 <골때립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면이 많다고, 또는 적어도 그런 면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쳇말로 골때립니다.

언제 다른 기회에 더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 제7장. 정치체제에 대해.

이번 장은 미국의 정치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국가입니다.

일단 미국의 정치제도, 또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이해가 있어야만, 미국을 이해할 수 있고 미국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비즈니스를 수행하기가 더 용이할 것입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8장. 미국정치에 대해.

미국정치에 관해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정치는 아시다시피 양당 체제가 자리잡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집권합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The Federalist Papers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서들이 있는데, 미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미국 헌법과 더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역사적인 문서들입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로 어느 은퇴한 미국 연방대법관 출신 인사의 의회청문회에서 발언이 아주 인상깊었습니다.

Scalia 대법관이었습니다.

그 사람 발언을 이해하려면,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건국의 조부들에 대한 이해도

사전에 필수입니다.

미국 헌법이나 The Federalist Papers에 담긴 사상의 기반은 이런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야망이 야망을 견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쉽게 언급하자면, <치고 박고 싸우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미국 건국의 조부들 세대에서 자기들이 영국의 전제군주에게 반기를 들게 됨으로써 미국의 독립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권력>, <국가권력>을 한곳에 모으지를 않고 분산시킨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논의와 토론, 설명이 가능하지만, 시간관계상, 지면관계상, 다른 부분들은 줄이고 Scalia 대법관이 말한 것만 언급하고 이번 장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것에 불평하고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 특히 식자층에서 개탄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Scalia 대법관의 발언과 설명에 따르면, 원래 그런 시스템을 구상한 것이 미국 헌법의 설계자들, 건국의 조부들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서 전제국가의 독재자들이나 행사하는 독점적 권력이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설계가 애초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헌법을 수입하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한국과 한국정치에서도 많은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Scalia 대법관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현대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 설명의 취지는 ‘치고 박고 싸우도록 원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치고 박는 모습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 제9장. 범죄에 대해.

미국사회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범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얘기를 특히 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범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최선진국이라는데, 왜 치안이 불안한지, 특히 밤에는 나가지 말라는지.

왜 서양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치안이 좋다고 하는지,

왜 미국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범죄가 많은지,

그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향후에.

## 제10장. 기타 사항에 대해.

기타 사항들도 줄줄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인종문제, 경제체제, 문화, 이민, 아메리카 원주민, 핵폭탄, 역대 미국 대통령 및 트럼프,

소재와 주제,

분석과 시각(관점),  
표현과 전달의 측면에서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 <나오며>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들어가며>, <전체 10장>, <나오며>로 구성된 전자책을 똑딱 완성했네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전자책이라서, 그 포장이나 체제에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고 대단히 자유롭게 써봤습니다.

조만간 또 지면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읽어주셔서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든 금쪽보다 더 귀한 시간을 잠시 일부러 만들어 이 글을 써봤다는 점을 밝힙니다.

한국에 계신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시간을 특별히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2025년 5월 1일,

미국에서,  
필자 드림.

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http://www.koreabest.org)